

광주, 대한민국 'AI 중심도시' 꿈 무르익는다

과기부, '인공지능 집적단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지역 확정
국가데이터센터 기반 자동차·에너지 등 지역경제 도약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민선 7기 광주시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정부가 채택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주를 '국가 AI혁신 거점'으로 선언하고, 전국적으로는 각 권역별 강점을 살려 AI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지역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지정해 고

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광주가 최첨단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까지 1단계로 현재 구축 중인 '국가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 등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전국 유일의 '국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로, AI 중심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국가 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과 지역 대표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농식품, 헬스케어, 콘텐츠 융합 산업을 묶어 지역 미래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광주 AI집적단지의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집적단지 조성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정책·연구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단 지위도 법인화 절차 등을 밟아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족한 AI인재육성을 위해 탄생한 광주 AI사관학교가 확대되고, 기업·인재유치, 해외 기업·연구자와의 공동연구·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도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광주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지역으로 조성한 뒤, 광주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인정할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로 민선 7기 들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광주시의 선택도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는 불과 수년전만 해도 인공지능 불모지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대표 미래산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에 주목하고, 2019년 1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일각에선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래산업 유치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한 광주의 진정성이 정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9개월 만에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는 선도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그간 인공지능산업의 씨앗을 뿌렸고 거기서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집약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AI산업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조만간 광주를 중심으로 AI중심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은 국민 삶의 현장이자 인공지능, 디지털 뉴딜 확산의 핵심 축"이라면서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창의적인 인공지능 융합·확산 과제를 기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트광주21' 개막 '행복한 미술시장'을 주제로 한 '아트광주 21'이 28일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15개국 70개 국내외 갤러리 부스 등 모두 95개 부스가 운영되며 535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최현배 기자choi@

"전방·일신방직 터 신·구 도심 균형발전 상업지로"

광주시, 사업자측에 요구키로

광주시가 근대산업 유산인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를 신·구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8일 전방·일신방직 보존활용 전문가 합동 회의를 열어 업체 측과의 본격협상을 앞두고 개발 원칙, 방향 등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구 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공장, 관리동, 기숙사, 창고 등 시설물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원형 보존, 이전, 재현, 축소, 상전화 등을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협상초안을 가다듬은 뒤 설명회를 열고 도시건축공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초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와 업체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놓고 본격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태우 국가장 거센 논란에... 靑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 없다"

이철희 정무수석 밝혀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6면>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는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다만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으로 용

서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런데도 국가장을 결정할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는 없다. 대선을 앞두고 고려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국민통합이나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내에 내년 대선을 고려한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남북 관계를 푸는데 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이벤트성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일은 단언컨대 없다"며 "이벤트성 남북정상회담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5·18 시민군 박산선 돌출행동에 성난 광주 ▶6면
- 복스 -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 세계 역사와 지도를 비춘 '휴의 전쟁' ▶14-15면
- 전남 드래곤즈 FA컵 결승 '유쾌한 반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국가장(國家葬) 공고

故 노태우 前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영 결 식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토) 11:00
- 장 소 :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서울 송파구)

안 치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토)
영결식 후
- 장 소 : 검단사(경기 파주시)

장 우 원 장	김석수	윤영철	강성국	권해욱	김상원	김일윤	김진현	현식문	류근혁	박재민	서영교	양승동	윤재욱	이상욱	이인영	임종식	정은경	최명현	한봉수	행 정 원 장
	김용준	이범창	강은희	김강립	김상철	김재신	김창식	문성욱	박정혁	서영택	양승양	윤창훈	이상철	이재성	김종우	정종택	최최민	한한순		
부 위 원 장	김형오	이수성	강재섭	김기문	김세환	김재호	김태호	민홍철	박광석	박진규	손경식	이강섭	이계순	이승우	이종구	정희택	조경식	최최성	정정수	전 해 철
	노재봉	이현우	고규창	김기현	김승식	김정배	김하용	박광영	박정훈	손주환	송두환	이관재	이규성	이시중	이종찬	장현국	조성욱	최최연	한한석	
고 문	박병석	이헌재	고명승	김대룡	김영식	김정우	김한규	박대출	박화진	신상해	신정철	이동호	이규연	이억원	이철우	이필섭	이해수	이희일	김창룡	집 행 위 원
	권영진	이희창	고우현	김도읍	김영일	김종인	김현모	박무익	박희도	신정철	안경덕	이동호	이규연	이억원	이철우	이필섭	이해수	이희일	김창룡	
장 례 위 원	정진석	소강석	조순환	김동진	김오수	김중권	김지철	김현우	김민호	박범계	박성호	이백규	이병기	이봉서	이상배	이익원	이재현	정영의	최광동	김 창 룡 의 남 기 회
	정해창	손진우	최영철	김명선	김용래	김지철	김진우	김현우	김민호	박범계	박성호	이백규	이병기	이봉서	이상배	이익원	이재현	정영의	최광동	
고 문	송범두	최영철	구윤철	김문희	김유호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 창 룡 의 남 기 회
	송영길	최영철	구윤철	김문희	김유호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고 문	원행수	강대식	권철승	김민석	김인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 창 룡 의 남 기 회
	김덕주	유남석	강선천	김민석	김인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고 문	김명수	유관	강선천	김민석	김인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 창 룡 의 남 기 회
	김명수	유관	강선천	김민석	김인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	

2021년 10월 29일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國家葬) 장례위원회 위원장 김부겸